

사유 재산과 국유화에 관한 히틀러의 견해

작성자 윤영자 23-05-23 08:59 조회 13회 댓글 0건

다음글

사유 재산과 국유화에 관한 히틀러의 견해

Rainer Zitelmann, 2022. 02. 24 (황수연 옮김)



사적 소유권과 국유화에 관한 아돌프 히틀러의 대한 대답은 꽤 간단한 것 같다. 히틀러가 생산을 인정했고 국유화를 거부했다고 일반적으로 행해지듯이, 그것을 거기에 놓아두면 피곤 왜냐하면 이 진술은 너무 획일적이기 때문이고 대답하지 않은 채 놓아두기 때문이다. 나의 책 <히틀러의(Hitler's National Socialism)>에서 나는 그리고 사회정치적 사고를 분석한다.

플록: “사적 소유권의 모든 본질적인 특성

1941년에 출판된 국가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관

자이자 사회학자인 프리드리히 플록(Friedrich Pollock) [프랑크푸르트 사회 연구소(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in Frankfurt, 그 연구소는 후에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중심이 되었다)은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나는 사적 소유권의 법적 제도가 유지되었다는 점, 그리고 국가 사회주의의 특징인 많은 속성이, 비록 여전히 모호하지만, 비전체 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적 소유권의 기능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하는가? “몇 개 집단의 권력 중의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결과인가? 나는 그것이 훨씬 더 깊게 도달하며, 한 예외를 제외하고, 사적 소유권의 모든 본질적인 특성의 야 한다고 믿는다. 가장 힘 있는 회사들조차도 가장 높은 이윤이 예상될 수 있는 영역들에서 새로운 기업 분야들을 설립할 권리나 (을 중단할 권리가 거부되었다. 이런 권리들은 전제로서 지배 집단들에 이전되었다. 처음에는 권력을 잡은 집단 사이 타협이 생산을 결정했다. 그러한 결정에 직면하여, 소유권은 실사 그것이 주식 자본의 압도적 다수의 소유로부터 도출된다고 할지라도 무력 그저 소수만 소유할 때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가 알듯이, 히틀러의 방법은 좀체 제도나 조직을 그저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만으로 구성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의 내적 실패하여 드디어 그것의 원래 기능이나 원래 내용이 사실상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게 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오직 비유만을 위해서, 법도 역시 전혀 폐기되지 않았고 그것의 실체와 의도가 조금씩 침식되어 그로 인해 실제로 폐지되었다고 언급해야 한다.

자기의 초기 연설들에서 히틀러는 토지의 국유화를 옹호했지만, 원칙상 여전히 사적 소유권에 찬성하였다. 오토 바게너(Otto Wa에서 명백해지듯이, 국유화에 관한 히틀러의 회의적인 입장은 그의 사회-다윈주의(socio-Darwinist) 신념들과 관계가 있었다. 1932년 6월까지 NSDAP(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혹은 National Socialist Party)의 경제정책부를 이끌었고 히틀러의 경제 정책 고문이었던 오토 바게너는 히틀러가 1930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고 보고한

이 점에 관한 한, 지금까지 그것이 시도되고 요구되었던 형태에서 국유화의 전 개념은 내 생각에는 틀린 것 같고, 나는 바게너 씨 하오. 만약 우리가 그 문제의 자연적이고, 건전하며, 또한 만족스럽기도 한 해결책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어떤

(a process of selection)을, 재산과 회사 소유에 대해 요구와 권리를 가진 자격이 있을-것이고 하여간 허가될-사람들을 위한-
켜야 하오.

반면에, 히틀러는 [실업가의] 자기 재산의 처분이 전혀 실업가의 사적 문제가 아니라고 자주 그리고 힘주어 진술했다. 1934년 10
했다:

그러므로 특히 부는 더 큰 향유 가능성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더 큰 의무도 가지고 있다. 얼마의 크기이건 재산의 활용이 오로
라는 견해는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더욱더 수정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공동체의 공헌이 없이는 어떤 개인도 그러한 이
것이기 때문이다.

히틀러에게는 형식적인 사적 소유권 유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국가가 생산 수단 소유자들의 결정들을 정할 무제한의 권리를 가지고
법적 사적 소유권 제도는 더는 매우 큰 의미가 없다. 이것은 풀룩이 한 가지를 예외로 하고 “사적 소유권의 모든 본질적인 특성의 표
가 말하고 있는 바이다. 생산 수단의 소유자들이 더는 자유롭게 자기들이 하는 투자의 내용, 시기 선택, 그리고 크기를 결정할 수 없
적인 사적 소유권 보장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사적 소유권의 본질적인 특성은 폐지된 것이다.

1942년 9월 3일 자기의 식탁 좌담들(table talks)에서, 히틀러는 토지가 “국유 재산이고, 결국 오직 대부분서만 개인에게 주어진다
는 사적 소유권을 오직 그것을 “사적 편익에 우선하는 공동 편익(common benefit ahead of private benefit)” 원칙에 따라 사용
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토지를 국가가 설정하는 목적들의 틀 안에서 사용하는 한에서만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히틀러에게는
하는 공동 편익”의 원칙은 만약 그것이 공동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가가 사적 소유권이 사용되는 방식, 정도, 그리고 때를 결
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공동 이익은, 물론, 국가에 의해 정의된다.

1937년 5월에 히틀러는 선언했다:

나는 독일 산업에, 예를 들면, “당신이 지금 그러그러한 것을 생산해야 하오,”라고 명령한다. 그다음 나는 4개 년(Four-Year) 계
온다. 만약 독일 산업이 나에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기라도 하면, 나는 그것[독일 산업]에 말할 것이다, “좋소,
인수하겠지만, 그것은 행해져야 하오,”라고. 그러나 만약 산업이 나에게 “우리가 그것을 하겠습니까,”라고 말하면, 내가 그것을 떠
나는 매우 기쁘다.

히틀러에 의한 그러한 언명들이 공허한 험박이 아니라는 점은 늦어도 1937년 7월 23일까지는 실업가들에게 명백해졌는데, 그때 히
채굴을 위한 회사(AG for Ore Mining)와 철 제련 헤르만 괴링(Iron Smelting Herman Göring)의 설립을 선언했다. 히틀러의 그
는 위협들로 시작했었던 진전은 마침내 제국 공장 헤르만 괴링(Reichswerke Herman Göring)의 창설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194
을 고용했다. 잘츠기터(Salzgitter)에 있는 공장은 마침내 유럽에서 가장 큰 것이 되었다. 이와 함께, 국가 사회주의 국가는 자기기
치 우위(primacy of politics)가 아주 진지하다는 점, 그리고 민간 산업이 국가 지시들의 집행에 저항하는 영역들에서 그것이[국가
으로 되기와 국가 통제 기업들을 쌓아 올리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1942년 2월 14일 요제프 괴벨스(Josef
진 생산 증가 문제에 관한 대화 동안, 히틀러는 말했다: “여기서 우리는 전 생산 과정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과 우리가 발하는 자
원하지 않는 실업가들이, 그들이 그다음 경제적으로 망할지예 상관없이, 자기들의 공장들을 잃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엄격하게 처

히틀러의 역할 모형: 스탈린과 그의 계획 경제

우리가 많은 히틀러의 발언에서 알듯이, 국가 사회주의자들은 그 전쟁[제2차 세계 대전] 후 기간에 계획 경제를 확대할 작정이었
에트 경제 체제를 찬양했다. “만약 스탈린이 10년에서 15년 더 계속해서 일한다면,” 히틀러는 1942년 8월에 소집단 회합에서 말했

소비에트 러시아가 지구상에서, 150년, 200년, 300년이 지나더라도,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아주 독특한
할 수준이 올랐다는 점에 의심이 있을 리 없소. 국민은 기아를 겪지 않았소. 모든 것을 하나로 합쳐서 생각할 때: 그들은 두 해 전에
없었던 여기에 공장들을, 헤르만 괴링 공장들같이 큰 공장들을 지었소.

다른 기회에, 역시 자기 핵심층에, 그는 스탈린이 누구든지 “무조건적(unqualified)” 존경을 표해야 하는 “천재(genius)”라고, 특히
제 계획을 고려하면 그렇다고, 말했다. 소비에트 러시아에는, 미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들과 달리, 전혀 어떤 실업도 있었던 적이 없
했다,

여러 기회에, 그 독재자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에게 대규모 주식회사들, 에너지 산업, 그리고 “필수 원자재들(essential raw
하는 모든 다른 경제 분야(예, 철강 산업)를 국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물론, 전쟁은 그러한 급진적인 국유화들을 집

아니었다. 히틀러와 국가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어떤 경우든, 그들은 나라의 기업 공동체가 가진 국유화 공포를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오고 있었다. 따라서, 1942년 10월 SS(나치스 친위대; Schutzstaffel) 우두머리 하인리히 히틀러(Heinrich Himmler)는 “전쟁 동안에는” 독일의 자본주의적 경제의 근본적인 변경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이것에 대항해서 “싸우지 자신에 대한 ‘마녀사냥(witch-hunt)’을 불러일으킬 것이면서. 1944년 7월에 어느 SS 대위(Hauptsturmführer)에 의해 작

는, “SS가 왜 기업 활동들에 종사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 질문은 특히 순전히 자본주의 면에서 생각하고 공적이거나 적어도 공적 성격을 가진 회사들이 발전하는 것을 보기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 자유주의 기업 체제의 시대는 기업의 우위를 요구했는데, 바꿔 말하면 기업이 먼저고, 그다음이 국가다. 이것과 반대로, 런 태도를 보인다: 국가가 경제를 지휘한다, 국가가 기업을 위해 거기에 있지 않고, 기업이 국가를 위해 거기에 있다.

미제스: “자본주의 외관을 가진 사회주의”

이것은 히틀러와 국가 사회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수립했었던, 경제 체제의 바로 그 본질을 본 방식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경제학자들 같은 기만한 관찰자들이 그것을 본 방식이기도 했다. 덧붙여 말하면, 그는 이 논문의 서두에 인용된 좌익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에 도달했다. 1942년 6월 18일에, 미제스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주필에게 편지를 썼다. 많은 자기 동시대인보다 더 무엇보다도, 오늘날 국가 사회주의에 관해 쓰고 있는 많은 저자보다 더 명백하게, 그는 다음과 같이 인식했다,

독일형 사회주의[통제 경제(Zwangswirtschaft)]는 그것이, 비록 그저 명목상일 뿐일지라도, 몇몇 자본주의 제도를 유지한다고 있다. 물론, 노동은 더는 “상품(commodity)”이 아니다; 노동 시장은 잠엄하게 폐지되었다; 정부가 임금을 정하고 모든 근로하는 장소를 할당한다. 사적 소유권은 명목상으로는 손대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상 이전의 기업가들은 상점 관리자(shop manager)의 지위로 격하되었다.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지, 무슨 가격에 누구에게서 살지, 무슨 가격에 누구에게 팔지 그들에게 명정한 금지 명령들에 항의할지 모르지만, 최종 결정은 당국에 있다. ... 따라서 시장 교환과 기업가 정신은 그저 속임수일 뿐이다. 소비라, 정부가 생산을 지휘한다;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모든 개인의 소득과 지출을 정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외관을 가진 사회주의적 경제 활동의 전반적인 계획과 전체적인 통제—이다.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의 몇몇 상표가 유지되지만, 그것들은 진정한 시장 경제를 하는 것과 전적으로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히틀러의 언명들로부터 알듯이, 일단 그 전쟁[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 그는 그 발전을 국가 명령 경제로 더욱더 밀고 갔다. 1942년 7월 27-28일에 자기 핵심층에게 한 (“식탁 좌담들”로 알려진) 자기가 혼자서 하는 긴 이야기들(monologues)에서 히틀러는 “현재 있는 사용은 오직 위로부터의 계획 경제로써만 달성될 수 있소,”라고 말했다. 약 두 주 후에, 그는 말했다: “경제의 계획에 관한 한, 시작 단계에 있는데, 나는 포괄적인 독일 및 유럽 경제 질서를 쌓아 올리는 것이 아주 멋진 어떤 것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오.”

글쓴이) Rainer Zitelmann

라이너 지텔만은 역사학자이자 최근에 출판된 책 《히틀러의 국가 사회주의(Hitler's National Socialism)》의 저자이다.

옮긴이)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